

大學의 教育環境 개선

張 裳

(梨花女大 基碁敎學科)

1. 들어가는 말 :

大學教育의 총체적 위기

세계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숨돌릴 틈 없이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경험했다. 수십 년에 걸쳐도 일어날 것 같지 않던 정치적인 변화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났다. 이데올로기적 냉전체제는 이미 붕괴되었으며,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새로운 다극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로 인한 긴장과 대립이 국가간·지역간의 갈등관계를 갈수록 심화시켜 경제전쟁 또는 산업·자원·기술전쟁의 양상으로 진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는 첨단 정보시스템 덕택에 국제화된 동시에 지방화되어 이제야말로 全世界的 次元에서 일치와 다양성을 함께 경험하고 있으며,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국제화·정보화·지방화로 대변되는 급변하는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우리 모두의 삶의 양식과 조건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대응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대학 역시 이러한 변화의 물결 앞에 있다. 국내의 정세의 변화는 사실 대학교육에 큰 도전과 충격으로 다가온다. 경제력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각국은 무엇보다도 高等教育을 통한 수준 높은 기술과 인력을 기반으로 국제경쟁에서 이기려고 할 것이다. 즉, 미래사회의 국제경쟁 속

에서 각 나라들은 고등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가발전을 위한 대학의 사명은 보다 직접적인 과제로 다가온다. 따라서 이제 대학은 전통적인 상아탑으로서보다는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사회와의 상호의존적 유대관계를 갖는 적극적인 知的 共同體로서의 위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경쟁사회를 위한 대학의 사명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의 대학교육이 한마디로 危機에 처해 있다는 공동의 인식은 정확하다. 그동안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현대 고등교육의 역사가 짧은 이 땅에서 대학으로서의 객관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사회적 충격과 혼란 속에서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대학의 이러한 위기적 현실은 크게 물리적·비물리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大學財政의 취약성과 그로 인한 대학 教育環境의 부적합성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성장에 치중하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과 변화에 상응하는 교육투자는 하지 못했으며, 특히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빈약하였다. 정부 예산 중 교육투자의 비율이 국민총생산의 3.5%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나마 교육비 중 대학교

육비의 비중은 6.7%에 그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립대학의 재정은 거의 등록금에만 의존하다 보니 일차원적 강의는 계속되고 재원조달을 위한 수단적 의미를 지닐 정도로 양적 팽창은 이루어졌으나, '교육환경적' 차원에서 대학교육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은 없었던 것이 실상이다. 따라서 대학의 내실을 들여다보면 강의실, 도서관, 교원수, 실험실습기구 등 여러 측면에서 대학 교육환경으로서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이래 가지고서는 국제경쟁시대를 위한 고급인력 양성이라는 이 시대 대학의 기본과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금할 수 없다.

또하나의 대학 위기는 비물리적 차원의 것이다. 말하자면 大學 理念이 지나는 사회적 가치와 대학 學問精神의 윤리성과 권위가 크게 실추되어 있는 현실이다. 거듭되는 정치적·사회적 격변의 와중에서 대학의 학생활동은 거시적·정치지향적·이데올로기지향적이었다. 이로 인해 대학의 학문연구 기능이 약화된 것은 물론 대학 사회 내부의 상호불신과 분열 또한 심각하다. 반독재·반외세를 외치는 목소리는 컸지만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할지, 그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고, 오직 유행적이고 슬로전적인 주장에 그친 점이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학문연구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경향성을 띠고, 객관성·순수성·진실성의 분위기가 결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느 누구도 대학이 몸담은 지역에서 大學人으로서의 正體性을 창출하는 작업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늘날 대학이 몸담고 있는 지역은 시대를 앞서 가는 대학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타락한 시대에 함몰되어 헤어날 줄 모르는 문화적으로 황폐한 모습이다. 대학이 자유와 자주, 진지함과 심오함, 그리고 현실과의 끊임없는 긴장관계 속에서 추구되는 미래지향성을 그 존재이유로 삼고 있다면 오늘 이 땅의 대학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감이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대학교육의 總體的 危機

에 대한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대학인으로서 21세기를 예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절감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대학교육의 현실을 면밀하게 재검토해 보아야 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특별히 대학의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대학교육의 현실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필자는 교육학자가 아니므로 교육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주로 현상적으로 大學敎育과 周邊環境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편의상 여기서는 대학의 교육환경을 캠퍼스내·외로 구분하고, 각각의 환경을 물리적·비물리적(문화적·정신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려고 한다. 전문적인 교육학자의 눈으로 보면 미흡한 점이 많겠으나, 신학자로서 몇 년간 학생 처장 경험을 하면서 나름대로 느꼈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도 작은 의미가 있으리라 여기며 이 글을 쓴다. 바라기는 우리 대학이 처한 위기의 절박성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大學의 教育環境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발달하게 된다. 개인을 둘러싼 물리적·사회문화적 또는 심리적 조건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성장 발달에 역동적인 영향을 끼친다. 인간의 정신적·신체적 삶 전반에 발달을 가져오는 것이 교육의 일차적 목표라면, 교육 역시 넓은 의미에서 환경의 작용을 통한 인간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다면 교육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육의 本質的 內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학교육도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여건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그동안의 양적 성장과정에서 소외된 질적 향상의 문제가 대학교육 발전의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학교육은 국민들의 높은 대학교육열과 고등교육 수요에 대처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양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질적으로는 후진

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38.1%로 선진국인 영국이나 일본, 프랑스보다도 높다. 우리나라 인구 만 명당 고등교육 인구도 1989년 현재 384명으로 미국, 캐나다 등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어느 정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교수 1인당 학생수는 '92년 현재 32.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태이다. 총운영비의 60% 정도를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국립대학의 재정구조도 취약하지만, 사립대학의 경우는 재원의 대부분을 학생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3,000달러 정도로 선진국의 1/2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제 이러한 전반적인 교육여건이 대학의 구체적인 교육환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 해결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양적 성장과 함께 대학교육의 질적 성장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다.

1) 캠퍼스 내의 교육환경

대학의 일차적인 교육환경은 대학 캠퍼스이다. 위에서 말한 전체적인 대학교육 여건은 개별 대학의 물리적인 교육환경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캠퍼스 내에서의 물리적인 교육환경은 우선 도서관, 강의실, 학생복지시설, 전산시설 등 캠퍼스 내 교육시설 및 설비를 포함하며, 더 나아가서 대학정원, 대학교수와 대학의 연구여건도 포괄적으로 캠퍼스 내의 물리적 환경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들을 다 살펴보기는 어려우므로 편의상 教育 施設 및 設備를 중심으로 점검해 보겠다.

대학의 시설과 설비는 대학교육을 수행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국제경쟁이 날로 치열

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은 1979년의 대폭적인 이공계 정원확대와 1981년 졸업정원제 실시 이후 학생수가 급증했으나, 외곽시설의 증가는 이에 따르지 못하여 캠퍼스는 과밀현상을 빚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1985년 학생 1인당 건물면적이나 강의실 면적은 1975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1985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되찾았으나 여전히 예전에 못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수증원에 맞추어 연구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교수연구실 확보율이 78.5%에 불과하며, 21.5%의 교수들은 연구실 이외의 다른 곳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대학원생 교육을 위한 실험·연구 시설이 부족하며, 실험실습실 확보율이 79.4%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학원생 실습실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부생들을 위한 실험실습실은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장비의 보수비, 유지비와 실험재료비가 영세하여 제대로 기기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한다. 게다가 많은 대학들이 보유한 시설·설비도 노후장비 및 폐기대상 장비들이 많다. 이로 인해 특히 이공계의 경우 이론과 실습의 조화로운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첨단과학기술개발교육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복지시설, 각종 후생시설, 학생식당, 학생기숙사, 체육관 및 부대시설 등의 부족도 시설 및 설비와 관련하여 대학교육의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한편, 대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의 현황도 심각한 어려움 속에 있다. 도서관 시설 및 장서의 부족은 국내 대학의 공통적 현상으로서 학술·연구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대학교와 미국의 하버드대학, 일본의 동경대학 도서관을 비교해보면 서울대의 장서총수는 하버드대학의 12%, 동경대학의 23% 수준이며, 연간 도서구입비는 각각 12%, 6% 수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도서구입예산이 부족하여 첨단이론 서적이나 전문도서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전문사서의 부족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수준이 매우 낮다. 학교당 도서관 운영

<표 1> 대학 외곽시설의 변화추이

(단위 : m²)

지	표	1975	1980	1985	1990	1991
학생	1인당					
건	물 면적	12.3	11.5	8.3	10.5	11.1
학생	1인당					
강	의실 면적	2.53	1.69	1.26	1.44	1.58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작년도.

예산은 5천만 원이고, 학생 1인당 연간 도서관 운영예산은 1만 9천 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전문도서가 심각하게 부족하고 학생 1인당 장서수는 18.4권에 불과하다. 도서관 전산화의 미비, 도서관운영체제의 취약성, 전문사서의 부족, 학술지 구입의 한계 등 대학 도서관의 문제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대학 도서관의 문제와 함께 전산컴퓨터 시설의 미비도 대학교육의 커다란 문제점이다. 고도정보화 시대인 현대에는 대학 내에서도 컴퓨터의 기능 및 역할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컴퓨터센터는 컴퓨터 주전산기 및 단말기의 부족, 학술정보 교환체계의 지원기능 미약, 컴퓨터센터 운영예산의 비현실화 및 운용의 경직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여기서 대학의 시설 및 설비의 부족현황 외에 학생복지시설, 장학금 등을 일일이 열거하기란 불가능하므로 기본적인 물리적 여건의 열악함을 보여주는 정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오랜 세월이 걸쳐 타성에 젖어온 우리 大學의 體質 문제이다. 편의상 이것을 대학의 非물리적 환경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그동안 많은 규제와 제도적 행정관리 속에서 성장해 왔다. 한편으로 대학당국이 이에 대해 시시때때로 반발하기도 하였지만 어느 의미에서는 국립·사립을 막론하고 정부의 품에 안주해 왔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통치형태의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 결과 학문의 자유를 누리면서 창의적 발전과 자율적 성장을 해야 하는 대학이 획일적 통제의 대상이 됨으로써 대학교육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은 사회 속에서 독자적인 자기위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으며,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 그 책임을 중앙집권적인 정부의 탓으로 쉽게 그 화살을 돌렸고, 돌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현과 함께 정치적 발전과 사회적 성숙을 어느 정도 이룩한 미래사회의 대학들은 그렇게 안이한 자세로 일관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대학교육의 본

質的·基本的 責務에 대한 비판과 요청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고객인 학생들로부터 많은 주문이 쇄도할 것이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학문과 직업세계의 다양한 변화, 사회적인 압력과 기대의 상승에 따라 대학 자체의 변화라는 시대적인 과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스스로 자율성을 회복하여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대학의 책무에 진지하게 대응해야 하며, 정부의 교육정책도 그러한 방향에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대학행정에 관련된 정부의 기본정책은 학문의 자유와 창의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학은 교육의 사회적 봉사기능과 교육을 통한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균형과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대학교육의 비물리적 환경으로서 한 가지 더 깊고 넘어가야 할 것은 學生活動과 관련된 차원이다. 일제시대 독립운동 이후 오늘의 통일운동과 민중민주주의운동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학생활동의 중요한 두 축은 '민족'과 '민주'였다.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학생활동의 가장 중요한 두 이념축이었던 셈이다. 이제 이 두 이념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운동적 차원에서 전개해 온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70년대 이후 소수의 의식화된 학생들이 선도해 나갔던 학생운동은 정치지향적·이데올로기지향적이었고, 정치적 슬로건은 난무했지만 보다 큰 문화적 공감대를 이루지는 못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사회에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추구하는 대학문화가 정착되기보다는 흑백논리가 난무하는 대자보문화와 소수의 독선적인 주도, 다수가 무책임하게 침묵하는 분열현상을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일부 학생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학생활동의 초점을 정치적 선도자의 역할에 두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해 가고 있다. 동·서양의 이데올로기의 허무한 몰락의 지경이 되면서 단지 이념적 구호만으로 역사의 좌표를 제시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생생하게 확인하고 있다. 이제는 보다 具體的·文化的 說得을 통하여 공감을 확산할 수 있는 학생활동만이 대중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소수의 선각자들이 선도하는 운동보다는 대중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운동, 정치적 구호보다는 문화적인 설득력을 지닌 운동, 거시적이고 이념적인 운동보다는 지역에 관심을 갖는 운동으로 학생활동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자율성을 향한 대학당국의 노력과 구체적이고 문화적 설득력을 지닌 학생활동, 대학의 창의성과 학문성을 침해하지 않는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이 세 가지가 제대로 갖추어져야만 우리의 대학 캠퍼스 내 교육환경이 진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2) 캠퍼스 밖의 교육환경 :

大學教育 주변환경으로서의 地域社會

대학은 학문연구와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와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존재해야 한다. 특별히 대학이 발달고 있는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련성을 유지해야 한다.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관련성은 상호적인 것으로 지역사회는 대학교육을 위한 제2 캠퍼스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대학문화의 형성과 창출을 위한 학문연구와 교육은 일차적으로는 대학 캠퍼스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이차적으로는 대학 밖의 주변환경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그 지역의 독특한 건물집나 상권형성 등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교육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차적인 교육환경으로서의 지역사회의 중요성 때문에 물리적인 차원에서 大學 주변의 환경을 淨化하는 과제가 자연히 파생된다.

또 한편으로 문화적인(비물리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는 대학이 그 본래의 기능인 문화창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대학이 호흡하는 미래사회의 숨결을 대학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즉 大學村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대학문화는 기성문화에 도전하는 특성을 지니고 민족문화를 창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회 일반의 상업주의적 소비문화와 영합하여 모방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건전한 대학문화 형성을 위해 선도적 위치에서 오히려 사회변화와 요구를 앞서가는 문화현상을 창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장소가 지역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地域社會와 大學과의 상호관련성에 비추어 볼 때 제2의 캠퍼스로서의 지역사회가 물리적인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기능으로는 첫째로 대학인의 폭 넓은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전개되는 장소로서의 기능, 둘째로 대학인의 사고와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위락·휴식 장소로서의 기능, 셋째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 장소로서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대학사회는 그동안 교육환경으로서의 지역사회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으며, 또 지역사회에 문화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과거에 단편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지역문화형성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오히려 최루탄이 난무하고 기존의 주거지역에 상업시설이 거세게 침투됨으로써 많은 주택들이 노후된 상태로 방치되거나 유흥업소로 대치되면서 지역사회기능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해야 할 대학이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제 건전한 지역문화의 구축을 위해 대학과 지역주민, 행정당국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적 차원에서 大學文化와 地域文化의 상호관련성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대학이 처한 곳에서의 지역문화는 대학문화이며, 대학촌에서의 지역문화운동이란 대학문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문화는 기성의 사회문화를 계승·보존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동시에 창조·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문화행위 그 자체보다는 문화행위의 전형을 창출하는 것에서 대학문화의 본질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문화의 최적 형식과 궁극적인 전형을 창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며, 대학은 바로 그러한 문화창조의 현장인 것이다. 따라서 대학문화는 실험적·창조적·가치지향적인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의 지역문화활동은 지역문화와 대학문화가 만나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축제와도 같은 것이며, 비상업적이어야 하고 미래 문화창조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 또한 그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대학과

일반대중 사이의 담을 허물고 대학문화는 상업주의적인 의미에서의 고급문화라는 등념을 깨뜨리며, 창조적·미래적인 대학문화를 대학이 몸담고 있는 지역에 뿌리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학문화와 지역문화가 접목되어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학이 속해 있는 지역의 문화는 創造的·學究的이어야 한다. 창조정신이 유지될 때에만 대학문화는 기존사회의 향락·소비·상업주의적인 지배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창조성과 탐구정신, 실험정신이 허용되는 문화만이 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대학 내의 각 집단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대학 밖의 지역사회와도 연대하여 共同體的文化를 형성해야 한다. 우리 민족 고유의 공동체성을 살리고 계승한다는 의미에서만 아니라 대학 안에서 학생들이 벌이는 운동과 지역사회가 서로 상관없이 멀어져서는 안 되고, 그 둘이 긴밀히 연결되어 학생들의 선진적인 주장이나 이념이 지역사회를 통해 확인되고 실증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역사회가 학생활동의 장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 둘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학생활동의 구조와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운동 같은 것이야말로 학생과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벌여나가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가 없는 것들이다. 셋째, 自律性이 대학문화의 내적 논리로서 관철되어야 한다. 학문연구를 위한 대학의 자율성이 지켜져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生活律로서 자발적인 헌신성을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세계를 돌아볼 때 자본주의 사회도, 사회주의 사회도 인류의 미래를 열어주지 못하는 것 같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에서 시작하여 평등에 이르러 했으나 실패했으며, 사회주의 사회는 평등에서 시작하여 자유에 이르러 했으나 실패했다. 인류역사는 우왕좌왕하며 시행착오를 거듭하겠지만, 인류의 새로운 미래는 체제변혁과 인간개조를 위한 정치적인 노력을 넘어서 보다 깊은 인간의 자발적인

헌신성의 차원에서 열릴 것이다. 대학이 속한 지역문화는 이러한 자율성과 자발적인 헌신성을 습득·훈련·실천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창조성·탐구성·공동체성·자율성이 활발하게 발휘될 때 참다운 의미에서 대학의 지역문화가 꽃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교육 주변환경으로서의 지역사회를 돌아보면 물리적인 차원에서나 문화적인 차원에서 제 2캠퍼스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다. 오래된 대학촌 주변은 퇴폐·향락문화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반대로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대학의 주변환경은 대학촌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 학생들의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불편한 경우들이 허다하다. 그러나 대학 주변환경의 문제를 학교와 정부, 지역사회에서 다 함께 인식하고 이를 타개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최근 일어나고 있다. '신촌 대학문화 중심지역화운동'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대학의 교육환경을 위한(물리적·비물리적) 주변환경 개선운동으로서의 地域文化運動의 한 예로 '신촌 대학문화 중심지역화운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3) 대학의 교육환경 改善運動의 예 :

신촌 대학문화 중심지역화운동

① 운동의 태동과 경위

신촌지역은 전철 이대역, 신촌로터리, 연대압구에 이르는 서울 서부지역의 부도심권이며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명지대 등 대학이 밀집되어 하나의 대학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10만 명의 대학인구, 5만 명의 초·중·고등학교 인구가 신촌로터리를 중심으로 상호교류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촌역, 신촌시장상가를 비롯한 4개 대학의 주변환경은 대학교육과 대학문화형성을 위해 조성된 것이 아니라 소비성 폐선가, 유흥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유흥업소, 대중음식점, 노래방, 숙박업소, 이용업소 등을 포함한 위생업소가 1,480개 소 난립하고 있으며, 일반점포 620개 소가 있는 반면 서점은 7개 소에 불과하다. 신촌지역문화운동이라 한다면 우선적으로 소

비지향적 퇴폐문화의 중심지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지역문화정화의 차원과, 공연장·서점 등이 들어선 大學文化 空間으로 바뀌어나가는 지역문화창조의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

1992년 4월에 이 문제를 놓고 신촌지역 4개 대학 학생처장 회의가 열린 데 이어 9월에는 이 지역 5개 대학 총장들이 대학촌의 소비문화와 퇴폐문화 추방과 변학분위기 조성을 논의하는 모임을 갖고 대학문화 개선 캠페인운동에 나섰다. 그 뒤 성명서가 나오고 연일 언론매체에 보도되면서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학의 교육환경을 이루는 지역문화의 개선을 위한 이 신선한 운동은 전국의 대학으로 확산되어 대학가의 건전 학생활동을 토착화시킬 뿐 아니라 대학문화로서의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② 목표 및 실천과정

이 운동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건전하고 새로운 차원의 학생문화를 창달하고, 대학 내외의 학구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퇴폐·향락 일변도의 사회적 병폐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려는 데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학과 주변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하며 대학문화 중심지역의 전국적 모범으로서 신촌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운동을 실천해 가는 과정은 대체로 세 가지 차원을 지니게 된다.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淨化運動의 차원이 그 첫째이며, 대학문화와 지역문화를 창출하는 文化運動의 차원, 그리고 대학과 주민, 행정당국의 협조 아래 이루어지는 장기적 地域社會 開發의 차원이 포함된다. 이 중 대학 주변의 유해환경을 말소하는 정화운동은 단기적일 수 있지만 문화운동과 지역사회개발은 장기적으로 치밀한 계획과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주체 및 방법

이 운동의 주체는 대학인, 지역주민, 행정당국으로서 삼위일체적인 유기적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운동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촌지역 5개 대학의 학생처장, 교수·학생대표, 주민대표, 서울시 관계자, 각 구의회 의장 및 구청장, 경찰서장 등을 포함하는 30명으로 구성된 '신촌 대학문화 중심지역화 추진위원

회'가 결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며, 법적·제도적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운동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 위원회는 다시 대학문화 조성위원회, 유해환경 정화위원회, 신촌지역 장기계획발위원회로 나뉘어서 역할분담을 하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직 운동의 시작단계이므로 뜻을 모아 모색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운동의 성공적 전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신촌 대학문화 중심지역화운동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여론 확산작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5개 대학 학생연합으로 건전 대학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이 그 하나의 방법이다. 신촌지역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유해업소 추방과 불매운동, 그리고 파소비 억제와 건전한 대학문화 환경의 조성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활동의 전개를 내용으로 하는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기왕에 있던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를 위한 것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대학문화를 형성·정착시키기 위한 학생들 자체 행사를 개발할 필요성도 있다. 이 경우 이미 학생들이 실행하고 있는 행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절거민촌 봉사, 맞벌이 부부를 위한 놀이방, 무료진료 등), 건전문화행사(관할지역 및 농활지역 주민초청 한마당 행사, 학보의 지역신문화 등), 대학가 주변환경 가꾸기운동(학교 가꾸기운동, 환경보호 운동) 등 기존 학생활동을 씨앗으로 삼고 대학간 유기적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지역사회 개발의 차원에서 신촌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과제이다. 이 경우 전체적인 개발의 방향은 모범적인 대학촌으로서의 상징성이 부여되고, 문화·예술공간 및 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며, 건전한 위락·휴식 공간과 쾌적한 옥외공간이 조성되어야 하고, 안정된 지역주민사회 기반이 강화되어야 하며,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호교류의 장이 조성되는 것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과정과 목표, 방법을 가지고 '신촌

대학문화 중심지역화운동'은 시작되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실효를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그동안 실추되었던 교수와 학생, 지역주민 및 상인, 행정당국 사이에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 오직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 이 운동을 통해 참다운 의미에서 대학문화와 지역문화의 접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성문화를 비판하고 민중문화를 전승·창달하며, 미래지향적·선도적 문화를 창출하는 대학문화 본래의 기능이 회복되고, 대학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신촌 대학문화 중심지역화운동은 그런 방향에서 신선한 활력소가 될 것이며, 앞으로 있을 많은 비슷한 운동들의 모범이 될 것이다. 이 운동은 타대학에게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지역문화운동의 모델을 제시하고 상징적인 대학촌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이 운동은 오늘날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환경운동, 시민운동, 신사회운동과 일맥상통하며 우리 사회에 팽배한 천박한 퇴폐·향락문화에 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미래문화의 모델이 될 것이다.

3. 맺는 말 : 大學 教育環境 改善을 위한 기본방향

앞에서는 교내외의 물리적·비물리적인 교육환경이 어떠한지 점검하고, 나름대로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어떠한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는지 개괄하였다. 이러한 점검은 대학교육의 총체적인 위기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신촌 대학문화 중심지역화운동'의 소개는 대학사회의 한 지역에서 시작되는 자구적 노력의 일단을 예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제 글을 마감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몇 가지 기본방향에 대해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로 大學의 自律性 구현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문민정부시대를 맞으면서 이 두 가지는 바람직한 대학사회를 이루기 위한 기본전제로서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자체에 대해서도 고도의 책임성과 수준높은

자질과 역량이 요구되며, 대학정원제 등과 관련하여 규제와 감독 등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정부의 대학정책은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별히 현재 대학이 처해 있는 제정적인 위기와 관련해서는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둘째로 大學의 協力關係 강화의 문제이다. 국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개발과 고급 전문인력의 생산이라는 과제를 맡고 있는 대학은 이제 산업체와의 산학협동과 대책 및 기업연구소와의 연구협력, 이를 지원하는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유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대학간에 경쟁적 노력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을 서로 교류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학간 협동 역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大學의 適應性 개발의 문제이다. 직업세계가 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대학교육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지금 대학들도 그 수요와 기대에 맞추어 교육체계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모델 및 여러 계층의 대학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특정분야의 중·소규모 대학이나 국제성을 띤 초국가대학이 필요하다. 대학원과 연계되는 연구중심대학, 학부중심대학 및 직업지향적 대학 등으로 실질적으로 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용기있는 시도가 요청된다.

위와 같은 방향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 대학의 교육환경은 점차 개선되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에서 대학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학과 지역의 문화 전반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대학당국과 학생, 정부, 국민들 모두의 문제의식과 해결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한 예가 '신촌 대학문화 중심지역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대학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부합되게 이같은 운동이 곳곳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물리적·문화적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범사회적으로 이루어질 때 21세기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대학이 그 자리를 확고히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